

### 35 요한복음: 예수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한 알의 밀이 되시다

성경말씀: 요12:12-26

이제 드디어 3년 반 공생애의 마지막 부분, 이제 십자가까지 닷새 남음(1). 유월절 어린양, 유월절에 죽으셔야 함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인간 구원, 사랑, 기적을 보여 주시려고, 인간의 행복, 다 맞는 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있는 그대로 문맥에서 벗어나지 않고 보아야 함

그러나 예수님 초림의 원래 목적은 무엇인가? 눅1:30-33, 눅24:19-20

하늘에서 오는 왕국을 세우시려고(단2:44).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왕국, 하늘의 왕국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동방 박사들(마2:2), 요한(마3:2), 예수님(마4:17), 제자들(마10:7))

사도행전의 제자들 왕국의 도래(행1:6)

성경의 가장 큰 주제: 이 땅에 왕국을 설립하는 것, 왕이 필요하다. 3년 반 사역의 핵심 “내가 왕으로 왔다!” 알리고 표적들로 증명하심

드디어 유월절 닷새 전에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 중요 토픽, 4복음서에 기록됨 < >, 어떤 왕인가? 그분의 죽음의 의미

#### 배경

요11장에서 나사로를 일으키심, 종교인들의 박해, 멀리 시골에 갔다가 유월절 시즌에 베다니에 오심

요12장 사랑하는 자들과 식사 교제, 부활한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수군댐

결국 종교인들 그분과 나사로를 죽이려고 함(10).

종교 지도자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이번에 해결해야 한다.

유월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옴, 바로 이때에 예수님은 왕으로서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드러내신다.

#### 왕의 예루살렘 입성(12-19)

군중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들음(12)

종려나무 가지, 환영(13)

예수님은 어린 나귀에 타심(14)

예언 성취(15)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군중들 시118편 인용, 메시아 시편(118:22-23, 26)

약 150년 전에 유다 마카비가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스 사람들 축출함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돼지 희생, 마카비가 다 내쫓음, 성전 봉헌절, 하누카

이때에도 시118편 낭송, 메시아

종려나무는 유대인들의 정치적 염원 표시, 2차 마카비 혁명을 기념하는 동전의 심벌로 사용됨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애국심의 표현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군대를 동원해서 로마 사람들 축출하는 것 기대

예수님은 500년 전 스가랴 대언자의 예언을 성취하신다. 속9:9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누가복음 19장 기사를 보면 나귀를 데려오는 과정도 이미 섭리로 이루어짐

이것을 통해 자신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즉 왕(나다나엘의 말 요1:49)임을 입증하심

또한 자신이 느부갓네살, 고레스, 알렉산더, 시이저 같은 왕이 아님을 보여 주심

왕의 입성, 대단히 화려한 행진,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

나귀는 왕가의 짐승, 평화의 짐승, 새로운 모습의 왕, 아무도 이해하지 못함(16)

군중들의 함성, 특히 나사로의 부활을 본 사람들의 증언(17)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임(18)

바리새인들의 결론(19)

입성 후 하시는 일(눅19)

종교인들의 투정(눅19:39), 예수님의 대답(눅19:40)

예수님은 입성 후 그 도시를 보고 우신다(19:41).

이유: 3년 반 동안 기회를 주었으나 깨닫지 못한다.

너를 돌아보는 때, 방문하는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다(19:44).

문제의 원인: 지도자들의 타락(19:45-46), 성전 청소, 내 집은 기도하는 집, 강도의 소굴

우리는 어떤가? 주님이 방문하시는 때에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종교인인가?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인가?

왕을 구하는 그리스 사람들 (20-22)

이 와중에 그리스 사람들이 등장한다. 요한복음에만

그리스 사람들의 특징: 기묘한 것들에 관심이 많고 찾아다닌다. 그래서 유월절 행사에 참석함

그런데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과 달리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였다. 제자들에게 부탁함(빌립, 안드레)

예수님 초림의 1차 목적: 유대인들의 메시아, 왕

그러나 동시에 복음서는 여러 곳에서 신약시대에 이방인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구원받는 것을 보여 줌

마태복음 시작: 동방의 이방인 지혜자들(마2), 예수님의 말씀(요10:16),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11:52)

여기서도 예수님은 서방에서 온 그리스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심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23):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드디어 왕으로 로마 사람들 쫓아내고...

그런데 그 뒤로 갑자기 예상치 못한 말씀들이 나옴(24-25)

한 알의 밀알(24-26)

영광을 받는데 너희 생각과는 달리 죽는 것을 통해 받는다.

왕이 오시는데 전쟁을 통해 왕국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을 통해 하신다.

밀알, 그 안의 것을 보지 못한다. 그런데 그 안에는 지금 밀알과 똑같은 수백만 개의 후손들이 들어 있다. 어떻게 되는가? 밀알을 땅에 던진다. 당은 마치 무덤과 같다. 그 안에 들어가 박힌다. 죽는다.

그리고는 여러 개의 밀알이 부활해서 나온다.

지금 예수님은 내가 왕인데 이제 죽은 뒤 부활해서 나와 같이 영원히 살 자들을 만들어 내실 것을 말씀하심 나는 이런 방식으로 통치할 것이다.

왕국의 연기: 교회 시대 예수님 부활 이후 지금까지 적어도 100억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

이런 것은 느부갓세살, 알렉산더 시이저 등이 결코 이루지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한 것

물론 최종적으로는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확대하심(25), 우리의 생명을 미워하고 죽으라는 말이 아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 죽으라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찾을 수 있다. 세상의 야망, 욕망 등

죄에 대해, 나 자신에 대해 죽어야 더 큰 생명을 누린다.

무엇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죽어야 한다. 음악가, 학자 등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 연주 뒤에 한 사람이 말한다. 당신은 천재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부단히

연습하였습니다. 그의 뛰어난 것은 죽음을 통해 왔다. 그것은 자기 부인, 부단히 노력하는 것

영적인 생명도 비슷하다. 고후12:9, 벰전5:6

24절을 다시 보자. 우리의 죽음이 없으면 우리 안의 수많은 가능성(우리가 남길 것들)이 죽고 만다.

새롭게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

롬12:1-2

살아 있는 희생물, 희생물은 원래 죽어야 함, 우리 몸을 죽일 수 없으니 살아 있지만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한다. 그것은 곧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많은 문제: 내가 죽지 않아서 생긴다.

주님의 결론(26): 우리가 원하는 왕가의 삶은 위대한 행진과 함께 시작되지 않는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십자가 먼저, 그 뒤 왕관

우리의 의무: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것(막8:35), 우리의 영광: 그분이 계신 곳에 있는 것

최종적인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고후4:17

고전2:8-9: 세상의 왕들 가운데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없다.

#### 결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산다. 그러려면 먼저 죽어야 한다.

나와 죄에 대해 죽지 않으면 종교인이 된다.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깨닫지 못한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인다.

반면에 2000년 전 종려나무를 흔들고 왕을 맞이하던 사람들

더욱이 그리스 사람들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죄들로 인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분, 바로 그분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그분을 본다.

지금 우리도 그분의 죽음을 통해 그분을 바로 알고 생명을 얻고 새 생활을 한다.

이 일을 위해 살아 있는 희생물이 되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바로 이때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생명 혹은 가능성이 우리를 통해 살아서 움직인다.

아프리카의 노예 시장, 수많은 노예들 목에 쇠사슬을 차고 땅을 보고 걷는다, 한 사람은 머리를 곧게 들고 걷는다. 왜 그런가? 그는 왕의 아들이었다. 자기의 신분을 잊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이다.  
우리는 주님의 왕가의 백성, 머리를 들고 험한 세상에서 옛 것에 대해서는 죽어야 한다.